



연휴 기간에 확인해 볼 이벤트들

1. 연휴 기간 확인해 둘만한 일정들

- 연휴 직전 10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 물가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확인해 둘 필요
- 같은 맥락에서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와 우리시간 12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관련 뉴스도 확인해 볼 필요
- 유럽의 경우 EC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드라기 내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탈리아 관련 뉴스들도 확인해 볼 필요

2. 중국의 PPI와 금리에 대한 경계심

- 중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컨센서스가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의 PPI가 금속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외의 상승이 나타날 여지도 존재
- 인민은행이 성급한 긴축을 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강도는 후퇴한 것이 사실이며, 이미 1월 말 단기 금리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불안감을 가질 여지가 있음

3. 미국도 인플레이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존재

- 미국의 CPI도 연말 주택 가격의 상승, 원자재 및 식품 가격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이상의 상승 가능성은 존재
- 최근 대규모 재정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고용지표까지 예상 이상의 호조를 보일 경우 인플레이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될 여지도 존재
- 상기 요인들과 관련해, 아직 명목 금리의 절대 레벨이 높지 않고 경기 회복 기대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이 바뀔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

1. 연휴 기간 확인해 둘만한 일정들

내일부터 2 거래일을 포함한 4일 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지수의 레벨에 대한 부담과 함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상황이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연휴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냥 편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연휴 전후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에 대해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연휴 직전인 10일에는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한다. 미국의 금리 및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11일 실업 지표와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확인되는 통화정책 보고서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유럽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11일에는 EC에서 유로존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2일 전후로 이탈리아 드라기 내각 구성 여부가 확인될 듯 하다. 12일은 EU의 산업생산 지표도 발표된다. 최근 유럽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이는 달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차트1] 설 연휴를 전후로 다양한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음.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이벤트들은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 (아래 날짜들은 한국에서 확인 가능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전월
2월 10일	중국	1월 PPI (YoY)	0.3	-0.4
	중국	1월 CPI (YoY)	0.0	0.2
	미국	1월 CPI (YoY)	0.3	0.4
2월 11일	EU	EC 유로존 경제 전망 발표	-	-
	미국	1월 연방 재정수지	-150 B\$	-144 B\$
	OPEC	월간 보고서(MOMR)	1월 자료 21년 수요 전망 : 95.9mb/d	-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757 K	779 K
2월 12일	이탈리아	드라기 내각 구성 여부(미확정)	오성운동 당원 투표 11일까지 진행	-
	미국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상원에 제출하는 2월, 7월 정기 보고서	-
	EU	12월 산업생산 (YoY)	0.0	-0.6
2월 13일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80.9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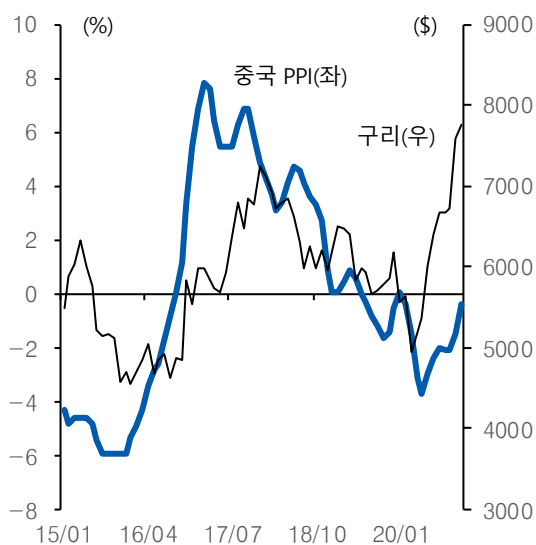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중국의 PPI 와 금리에 대한 경계심

1월 말 중국 단기 금리의 상승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최근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물가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의 중요도가 높을 수 있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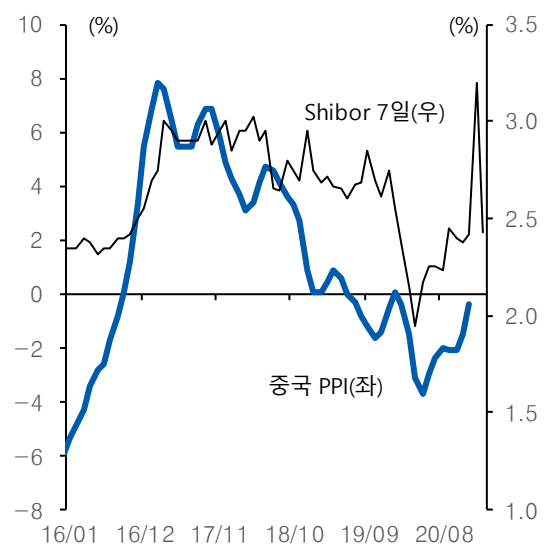
우선, 금일 오전(10:30) 발표될 중국의 물가 지표들의 경우 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컨센서스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의 PPI가 원자재 가격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최근 산업 금속의 가파른 가격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PPI에서부터 생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민은행도 성급한 긴축 스탠스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기존에 비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강도가 후퇴한 것 또한 사실이다. 1월 말에도 Shibor 금리의 급등이 나타나며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한 바 있고, 이번 주에도 중국 단기 금리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동된 시장의 경계심 형성에는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차트2] 최근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은 금리 지표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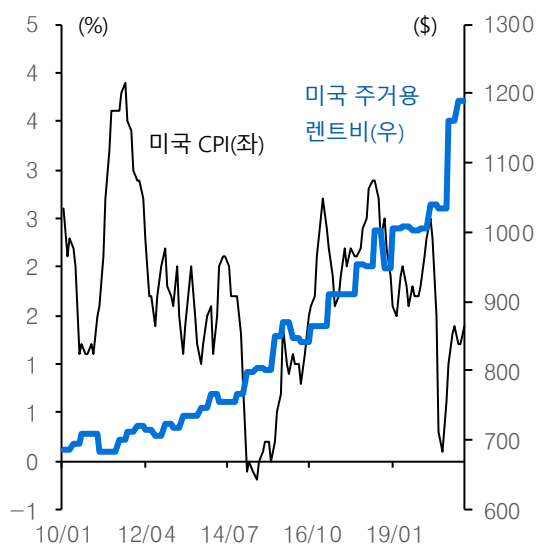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미국도 인플레이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존재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 지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1월 CPI에 대한 컨센서스는 +0.3%로 전월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 CPI의 구성 요소를 찾아 보면, 주거 비용이 약 42%, 음식료와 교통 비용이 각각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음식료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고, 주거 비용 역시도 최근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스 쉘러 주택가격 지수는 11월 전년 비 +9.1% 상승했고, 렌트 가격 중위수는 4분기 말 전년 동기비 +18.4% 급등했다. 이 같은 지표들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 지표의 상승 가능성은 계산에 넣어 둘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이처럼 산술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에 더해, 11일 실업지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주간 지표이고 그 자체로 무게감이 크진 않지만, 최근 규모의 논란을 수반한 채로 1.9조 \$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업 지표가 조합될 경우 인플레이와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명목금리의 절대 레벨이 높지 않고 금리의 상승이 그 자체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 버리는 상황까지 전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시장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자극할 소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차트4] 미국 물가 지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과 관련해 최근 렌트 가격의 상승세도 눈여겨 볼 필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아직까지 명목 금리의 레벨이 임계치에 달할 정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